

도서지역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 여수시 낭도를 사례로 -

이 정 훈*

La Participation des habitants à la Constitution de Villages Touristiques Insulaires : le Cas de l'Île de Nangdo dans la Ville de Yeosu en Corée du Sud

Lee, Jeong Hun*

요약: 전남 농어촌 지역은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로 정주기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을 다시 인구가 유입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서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전통을 배경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개발 사업에 임하는 낭도 주민의 참여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설문대상자의 인구속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구속성과 참여분야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주민참여 분야는 지역소득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 내 체험활동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근거한 주민참여 방안으로 당제의 계승·발전과 관광해설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도서지역 관광마을, 낭도, 주민참여, 당제, 관광해설 교육 프로그램

Résumé : La situation de la région rurale et maritime de la province de Jeollanam-do en Corée du sud se caractérise par une relative pénurie de population. Le projet 'Ces îles que l'on aime visiter', géré par la province de Jeollanam-do, s'articule autour de villages insulaires lieux de bien-être pour viser une augmentation de la population. Il s'agit de développer le tourisme durable en s'appuyant sur la beauté des paysages naturels, l'histoire, la culture et les traditions de cette région insulaire. Pour cela, la participation active des habitants est essentielle. Cette étude a pour but de réfléchir aux moyens de développer la participation des habitants en se fondant sur une enquête menée dans la campagne. Nous avons mutuellement analysé entre les moyens de la participation des habitants et l'apanage démographique à cause de leurs résultats différentes. Voici les moyens de la participation des habitants fondés sur la caractéristique communautaire: l'activité rémunératrice communautaire; l'amélioration de l'habitat; les loisirs dans la région. Nous proposons plusieurs exemples pour développer des programmes fondés sur la participation des habitants de l'île de Nangdo, d'un rite communautaire maritime et des programmes éducationnels d'explication touristique.

Mots-clés: villages touristiques insulaires, île de Nangdo, participation des habitants, rite communautaire maritime, programme éducationnel d'explication touristique

1.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전남 농어촌 지역은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 중 도서지역은 육지지역과 고립성, 제한된 선편 운항 등 접근성의 불편으로 인구 유입요인보다 배출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도서 주민의 고령화는 지역개

발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의 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또다시 인구유출에 따른 정주기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나타낸다. 하지만 도서지역은 육지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배경도 전남 도서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들 지역을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전라남도는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여수고등학교 교사,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Professeur de géographie au lycée de Yeosu, Chercheur au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mmunauté de Yeosu)(que-sais-je@hanmail.net)

을 민선 6기 역점시책 사업으로 삼고, 사업대상지로 여수시 낭도, 고흥군 연흥도, 강진군 가우도, 완도군 소안도, 진도군 관매도, 신안군 반월·박지도 등 총 6곳을 선정한 바 있다(전남일보, 2015년 2월 27일). 이 중 낭도는 공룡발자국 화석과 사빈·암석해안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처 추도·사도 등 자연경관이 빼어난 섬들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전라남도, 2015). 또한 낭도는 폐교를 활용한 마을기업 모델이 가능하며, 다양한 해안지형과 오래된 전통 당제(堂祭) 등 각종 유형·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적금도, 화양면과 연도·연육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지역 간 교류가 훨씬 활발해지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서지역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역량 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¹⁾ 개발에 관한 낭도 주민의 참여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먼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낭도의 자연·인문환경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내조사로서 지질도(1:250,000), 지형도(1:25,000), 수치지도(1:5000) 등의 자료와 역사·민속·문화에 관한 지역연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2014년 1월 당제 연구 조사와 2015년 6월 21일과 27일 두 차례의 현지 답사 및 주민·관계자 면담을 통해 낭도의 관광자원을 분석·평가하였다.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임하는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항목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 주민참여 태도 및 사업 참여 분야, 관광마을 사업단계별(계획-진행-운영) 참여 분야,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지역 관광자원과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 부문을 포함시킨 이유는 지역주민에 의한 관광자원 발굴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관심을 각각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역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은 농촌이든 도서지역이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기입 방법은 자기 기입식 방법과 면접 설문 기입 방법(고령사용)을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2부를 배부하여 이 중 미흡한 2부를 제외하고 총 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20.0 통계 패키

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속성과 참여분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χ^2)을 실시하였다.

2) 연구지역 개관

낭도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쪽으로 약 26.2km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그림 1) 그 모습이 이리와 흡사하여 이리 낭(狼)자를 써서 낭도(狼島)라 한다(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섬 동쪽에 낭도산(상산)이 있고 대부분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낭도산은 해발고도 280.2m의 육산으로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산성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선은 소규모의 만과 곶으로 이어져 있다. 만입부는 대부분 사빈해안이고, 남쪽 돌출부에 암석해안이 발달해 있다. 주변 해역에서 멸치, 조기, 갈치, 문어 등 어로가 성하고, 연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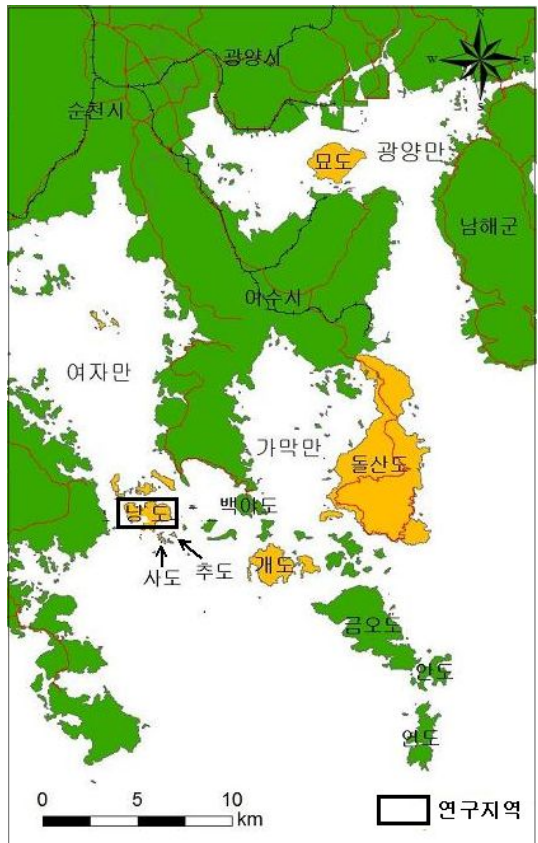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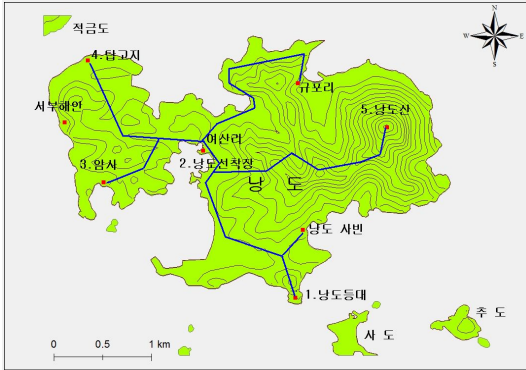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표 1. 낭도 현황(2014년)

가구수(호)*			인구(명)			경지면적(m ²)*			어업면적(ha)		
농가	어가	비농어가	계	남	여	계	논	밭	계	어장	양식장
129	44	81	254	134	168	302	1,443,180	155,524	1,598,704	80	70

* 낭도는 도서지역이지만 농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지역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다.
 자료 : 여수시 화정면사무소(* 표시는 사도리 포함 수치임. 어업면적은 어촌계 자료임)



출처 : 이정훈(2012a), 사진(황의동)

그림 2. 낭도 주요 지역 및 전경

서 김·고막 양식이 행해진다(디지털여수문화대전). 낭도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2008~2017)으로 적금도 및 조발도와 연도교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낭도 주민들의 일반적 특성은 총 세대수 181세대로서 총주민은 302명(2015년 5월)으로 남자 134명, 여자 168명으로 여자가 많으며, 이 중 70대 이상의 인구는 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이다(표 1). 행정구역으로 1개의 법정리(낭도리)가 있으며, 행정리로서 낭도의 여산리와 규포리, 사도의 사도리가 있다. 어촌마을로서 도서지역 민속문화인 당제가 전해져 오며, 2003년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섬 일대가 사도·적금도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농어촌지역은 일반 관광지와 달리 여가(leisure)

와 휴양(recreation)의 영역이 관광(tourism)의 영역과 잘 어우러지는 곳이다(S. Williams, 1998). 농어촌관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의 연구가 있는데, 수요자 측면의 연구 경우 농어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인지와 선호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급자와 공공 부문에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조록환, 2005). 반면 공급자 측면의 연구는 지역적 사례연구가 많아 일반화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대부분 정책 적용 이후의 사례를 연구함에 따라 주민참여²⁾ 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다음으로 농어촌관광의 실태와 대안을 모색한 연구로서 신영선·곽행구(2006), 최지호 등(2008)의 연구가 있다. 신영선·곽행구(2006)는 전라남도 농어촌관광의 실태를 분석하고 당면과제로서 농어촌 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최지호 등(2008)은 전남지역의 10대 핵심사업 중 농어촌 관광자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출한 후, 융·복합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민참여 의식 고취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꾀하려 했지만 주민 연령

과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개발에 관한 주민참여 연구는 몇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첫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록환(2003), 주대진(2004), 안중현(2007), 박울진·김태호(2010)의 연구가 있다. 둘째, 주민참여 방향과 주민역할에 관한 연구로서 이연택(2004), 이정록·안중현(2005), Hose(2007)의 연구가 있다. 조록환(2003)은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요인 가운데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주대진(2004)은 지역주민 참여로서 주민들의 능력 발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들의 역할 설정을 강조하였으며, 이연택(2004)은 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참여대상 주민의 역할을 적극 고려하였고 고령 마을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정록·안중현(2005)은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키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이 여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 사고라 하며 주민참여를 강조하였다. 안중현(2007)과 박울진·김태호(2010)는 각각 전남 장흥과 전북 익산을 사례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 견학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교육 및 능력개발의 중요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험상품 및 코스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Hose(2007)는 지역주민의 역할로서 해당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개발을 위한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지역 기념품 제조공정의 해설, 관광 가이드, 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역할을 중시했다. 그의 연구는 현지 주민의 역할에 대하여 단순한 지역 관광 가이드를 넘어서 지역산물의 제조공정 해설, 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이는 본 연구의 낭도 막걸리 제조과정을 해설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안과 폐교를 활용한 여가활동 서비스 제공의 주민참여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도서지역 관광자원 연구로서 광행구(2006), 김동주 등(2008), 이정훈(2011, 2012a, 2012b, 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관광자원으로서 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특성

을 고려한 해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해안의 자연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체계적·과학적 이해 증진과 더불어 해안 자연환경 보존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는 도서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측면에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관광마을이 여타의 농촌관광마을에 비해 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이나 지오투어리즘의 적합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연구지역의 이러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안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기존 연구의 주민참여 방안을 종합하면 마을공동체로서 개인의 인식(안중현, 2007)을 바탕으로 ① 소득창출 사업 ② 민박·숙박시설 건립 ③ 지역특산물 판매 ④ 교육과 견학 기회 확대 ⑤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조록환, 2003; 주대진, 2004; 안중현, 2007; 박울진·김태호, 2010). 이들 방안은 도서지역인 낭도에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방안을 기저로 하되 기존의 농촌지역과 차별화되는 참여 방안으로 ① 농업 및 어로활동과 관련된 민속문화자원으로서 당제의 계승·발전 그리고 ② 천연기념물이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도서지역은 육지부에 비해 다양한 경제활동이 나타나며, 기상 조건의 제약이 따르며 외부와 고립되고 폐쇄된 지역으로서 문화적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곳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천연기념물이나 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도서는 농촌지역에 비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이는 관광자원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서 잘 드러나는 내용이다.

2) 농어촌관광

그동안 추진했던 전라남도의 농어촌 관광운영은 주관 부서가 서로 달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해 사업 특성상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표 2). 특히 어촌체험마을 사업은 정책입안자들이 도서 주민의 삶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인식 없이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³⁾. 또한 자발적

표 2. 전남지역 농어촌관광 운영 실태

사업명	주관	목적	사업비(원)	현황(2013)*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 소득 증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2억/마을(국비, 지방비 각 1억)	가정마을(곡성) 영보마을(영암) 물마루마을(함평)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행정 자치부	자연친화적 농촌 조성, 높은 소득과정이 살아있는 지역 공동체 재건	15~20억/마을(국비 10억 포함)	연동리(해남) 양화마을(장성)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	농촌 진흥청	농촌 전통 문화를 테마로 발굴·보존하여 체험, 학습, 농가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 농촌 생활의 활력화 및 도농교류	1억/마을(국비 5천만 포함)	도선국마을(광양) 유곡마을(구례) 울림마을(여수)
팜스테이	농협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 농촌문화 체험, 지역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 문화, 관광이 결합된 프로그램 운영		봉조리(곡성) 외 11곳
어촌체험마을 사업	해양 수산부	어민들의 안정된 경제 기반 및 주거 기반 조성	408억/연 3억/권역(보조 95%, 자부담 5%)	복고, 도라마을(완도) 외동, 개도, 적금, 안도마을(여수) 외 23곳
자연생태 우수마을 및 생태 복원	환경부	자연생태가 잘 보전되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잘 복원한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	예산 확보시 시설 지원	상동마을(무안) 유천마을(화순) 고산마을(함평) 외달마을(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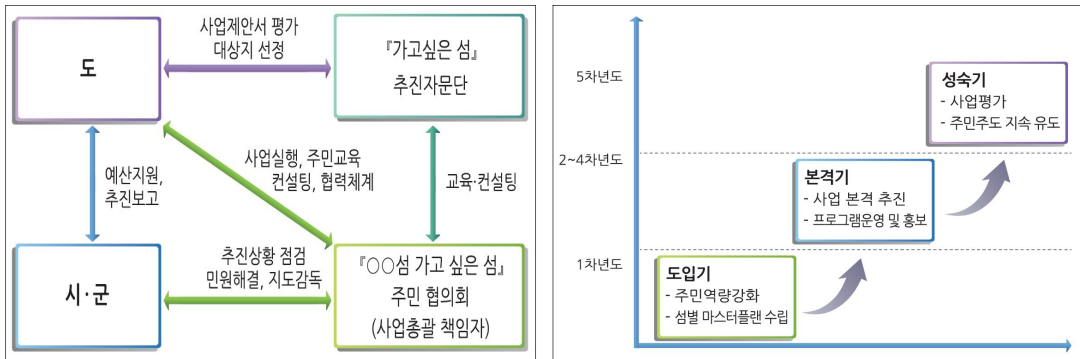
출처 : 신영선·곽행구(2006), 재구성. '* 표시는 연구자에 의한 추가 항목임.

인 주민참여가 어려웠던 점은 “개인의 노동과정에 의해 구조화된 시간적 제약이 주민참여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주대진, 2004)”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농어촌관광과 관련하여 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15년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동의서를 받아 주민대표가 사업제안서를 지자체

에 제출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운영의 방향은 도(道)와 각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소득사업,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림 3).

농어촌관광 진흥을 위한 남도의 테마형 관광자원으로서 도시지역 민속문화인 당제와 공룡발자국



출처 : 전라남도(2015)

그림 3.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운영 체계(좌)와 단계별 사업 추진(우)

표 3. 낭도의 당제와 지오투어리즘 실태

구 분	현 황	과 제
당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산과 규포 마을에서 전승되어 왔는데, 규포 당제는 10여 년 전에 중단되고, 현재 여산 당제만 계승되고 있음. · 과거 마을 총회에서 당제를 마을공동행사로 치르다가 종교적 문제로 반대가 심해 ‘낭도민속보존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제비(祭費)를 거출하여 명맥을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제를 바라보는 지역주민 간의 종교적 갈등 해소 · 낭도민속보존회의 기구 개편과 주민참여 확대 · 지역 관광과 연계한 제례 홍보 및 전수교육 실시
지오투어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학술조사 완료(2002) · 천연기념물 제434호 지정(2003) · 자연사·공룡화석지 체험학습장과 안내판 설치(사도 일원) · TV 방영(‘1박2일’ 외) 후 탐방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사·공룡화석지 체험학습장과 안내판 재정비(사도) 및 신규 설치(낭도) · 지역 관광해설사 양성교육 · 낭도-사도 간 연계 관광(도보교 설치)

출처: 연구자

화석·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을 꼽을 수 있다. 낭도의 당제와 지오투어리즘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3. 주민참여 분야와 방안

1) 낭도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

낭도의 연령대는 70대 이상 노년층이 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청장년층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주민참여에 관한 설문 응답자의 직업 구성을 보면 농·수산업(62%)의 비중이 높고, 대체로 3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의 비율(66%)이 높은 편이며,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객지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도 10%에 달한다(표 4). 이러한 출향인들을 잠재적 유입인구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 연대 사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참여 방안도 70대 이상 고령자의 역할과 농·어업중심의 소득창출, 그리고 원주민의 고비용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주요 관광자원 및 주민태도

지역의 관광자원은 수요자의 특성도 고려해야겠지만 공급자 측면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어

표 4.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성별	남자	25	50.0
	여자	25	50.0
연령	50대 이하	13	26.0
	60대	11	22.0
	70대 이상	26	52.0
직업	농·수산업	31	62.0
	상업·기타	19	38.0
거주 기간	전입 2년 미만	1	2.0
	3~5년	3	6.0
	5~10년	3	6.0
	10~30년	6	12.0
	30년 이상	37	74.0
거주 형태	고향	33	66.0
	귀향	2	4.0
	도시에서 이주	2	4.0
	타지에서 이주	8	16.0
	기타(외지 생활)	5	1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에 의한 상향식 지역개발이 되기 위해선 공급자로서 주민 당사자가 관광자원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들을 대

도시지역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상으로 낭도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관광마을 사업화를 위한 자원을 조사한 결과, 낭도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상산과 해안지형의 비율이 각각 44%와 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업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는 수산물과 해안 자연경관 그리고 주민 단결력이 각각 20%, 42%, 30%로 나타났다(표 5).

지역주민들은 사업진행 단계에서 마을 진입로나 해안 갯가길 조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내용인데, 낭도 공룡화석지 진입로 건설이나 상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통해 여타의 농촌지역에서 행해졌던 지역경관 사업과 차별화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낭도사빈 일대를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도시지역만의 어촌체험활동을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⁴⁾.

본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주민들의 참여 호응도는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 간의 결속력과 유대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외부 탐방객들의 방문에 따른 쓰레기 투기 우려와 마을 공동체 문화의 훼손 등 관광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서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5〉에 나타나듯이 지역주민이 관광자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산과 해안지형이다.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상산을 중심으로 한 트레킹 코스와 해안선을 따라 환상으로 펼쳐지는 갯가길 조성 시 야생화 등 경관식물을 심어 경관미를 가꿀 필요성이 있다(여수시, 2015). 여기에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선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낭도 당제 등 지역 민속문화와 낭도·사도의 공룡화석지를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 방안도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우 소수 지역대표보다 전주민의 참여를 원하는 비율이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참여 분야로서 지역특산물 판매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 따라서 주민 상당수는 전체가 참여할 수

표 5. 낭도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주요 자원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지역의 이미지	당산 숲	3	6.0
	상산	22	44.0
	공룡화석지	5	10.0
	해안지형	13	26.0
	낭도 막걸리	9	18.0
	기타(해조류)	2	4.0
지역 사업을 위한 자원	어족자원과 해산물	10	20.0
	쾌적한 환경과 문화	8	16.0
	민속문화(당제)	1	2.0
	유적지(공룡화석지)	3	6.0
	해안 자연경관	21	42.0
	지역특산물(농산물)	2	4.0
	인적자원(단결력)	15	30.0

자료: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

표 6. 주민참여 태도와 사업 참여 분야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주민 참여 태도	실제 이익을 얻을 사람	0	0
	지역대표	4	8.0
	전주민	44	88.0
	개인 자영업자	0	0
	기타	2	4.0
사업 참여 분야	지역특산물 판매	18	36.0
	지자체 소득증대사업	7	14.0
	정보화마을	11	22.0
	펜션숙박업	5	10.0
	수산양식업	3	6.0
	기타	6	12.0

자료: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

있는 지역특산물 판매나 정보화마을을 통한 소득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주민참여 분야

〈표 7〉에 제시되었듯이 지역민 설문조사와 관

표 7. 도서지역 관광마을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분야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계획 단계	선진지 지역 답사	13	26.0
	주민교육 참여	17	34.0
	계획수립 시 설문조사	11	22.0
	사업 아이디어 개발·제시	5	10.0
	기타	6	12.0
진행 단계	문화관광해설	6	12.0
	사업에 필요한 자원 제공	7	14.0
	마을도로, 담장, 지붕 등 경관 개선사업	10	20.0
	건설사업 때 노동력 지원	8	16.0
	사업과정 참여 및 의견 제시	16	32.0
운영 단계	민박·숙박시설 운영	7	14.0
	음식점 운영	5	10.0
	지역공동시설 관리	10	20.0
	지역특산품 판매	12	24.0
	어촌체험학습장 운영	5	10.0
	지역 홈페이지 운영	3	6.0
	사업을 위한 자원봉사	8	16.0

자료: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

게자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본 주민참여 분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계획 단계에서 주민교육 참여와 선진지 지역 답사 항목이 각각 34%와 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행 단계에서 사업과정 참여 및 의견 제시와 지역경관 개선사업 부문이 각각 32%와 2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 지역특산품 판매와 지역공동시설 관리 부문이 각각 24%와 2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속성과 비교했을 때 남도의 주민참여 분야가 상이하게 나온 결과이므로 그 상관관계를 교차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민참여 분야와 인구속성의 상관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8·9·10>과 같다. 먼저 계획단계의 경우, 성별과 연령별에 대한 참여 분야가 각각 99%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주민참여로서 남성들의 경우 선진지 지역 답사와 주민교육 참여가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선진지 지역 답사 비중이 높은 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개발의 성공사례 지역에 대한 견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외유성 관광기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선진지 지역 답사는 지역주민에게 타지역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참여 동기를 고취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주민교육 참여 비중이 높게

표 8. 주민참여 분야와 인구속성의 상관관계(계획 단계)

(단위: 명, %)

인구속성	참여분야	선진지 지역답사	주민교육 참여	계획수립시 설문조사	사업 아이디어 개발·제시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성별	남성	12(48.0%)	10(40.0%)	0(0%)	2(8.0%)	1(4.0%)	
	여성	0(0%)	11(44.0%)	8(32.0%)	4(16.0%)	2(8.0%)	25(100.0%)	
	전체	12(24.0%)	21(42.0%)	8(16.0%)	6(12.0%)	3(6.0%)	50(100.0%)	
연령별	50대 이하	1(7.7%)	4(30.8%)	1(7.7%)	5(38.5%)	2(15.4%)	13(100.0%)	df=8 $x^2=17.267$ p=.027
	60대	3(27.3%)	5(45.5%)	2(18.2%)	0(0%)	1(9.1%)	11(100.0%)	
	70대 이상	8(30.8%)	12(46.2%)	5(19.2%)	1(3.8%)	0(0%)	26(100.0%)	
	전체	12(24.0%)	21(42.0%)	8(16.0%)	6(12.0%)	3(6.0%)	50(100.0%)	
직업	농·수산업	10(32.3%)	9(29.0%)	8(25.8%)	2(6.5%)	2(6.5%)	31(100.0%)	df=4 $x^2=6.989$ p=.136
	상업·기타	3(15.8%)	10(52.6%)	1(5.3%)	3(15.8%)	2(10.5%)	19(100.0%)	
	전체	13(26.0%)	19(38.0%)	9(18.0%)	5(10.0%)	4(8.0%)	50(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9. 주민참여 분야와 인구속성의 상관관계 (진행 단계)

(단위: 명, %)

인구속성	참여분야	문화관광	사업에	마을도로,	건설사업	사업과정	기타	전체	카이제곱
		해설	필요한	답장, 지붕 등	때 노동력	참여 및			
		자원	제공	경관개선사업	제공	및			
성별	남성	3(12.0%)	5(20.0%)	7(28.0%)	2(8.0%)	7(28.0%)	1(4.0%)	25(100.0%)	df=6 $x^2=7.078$ p=.314
	여성	2(8.0%)	3(12.0%)	3(12.0%)	7(28.0%)	7(28.0%)	3(12.0%)	25(100.0%)	
	전체	5(10.0%)	8(16.0%)	10(20.0%)	9(18.0%)	14(28.0%)	4(8.0%)	50(100.0%)	
연령별	50대 이하	2(15.4%)	4(30.8%)	3(23.1%)	0(0%)	4(30.8%)	0(0%)	13(100.0%)	df=12 $x^2=16.175$ p=.183
	60대	1(9.1%)	0(0%)	1(9.1%)	5(45.5%)	4(36.4%)	0(0%)	11(100.0%)	
	70대 이상	2(7.7%)	4(15.4%)	6(23.1%)	4(15.4%)	6(23.1%)	4(15.4%)	26(100.0%)	
	전체	5(10.0%)	8(16.0%)	10(20.0%)	9(18.0%)	14(28.0%)	4(8.0%)	50(100.0%)	
직업	농·수산업	4(12.9%)	1(3.2%)	9(29.0%)	7(22.6%)	9(29.0%)	1(3.2%)	31(100.0%)	df=6 $x^2=13.158$ p=.041
	상업·기타	3(15.8%)	6(31.6%)	2(10.5%)	2(10.5%)	3(15.8%)	3(15.8%)	19(100.0%)	
	전체	7(14.0%)	7(14.0%)	11(22.0%)	9(18.0%)	12(24.0%)	4(8.0%)	50(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10. 주민참여 분야와 인구속성의 상관관계 (운영 단계)

(단위: 명, %)

인구속성	참여분야	민박·	음식점	지역공동	지역특산	어촌체험	지역홈페	사업을	기타	전체	카이제곱
		숙박시설	운영	시설 관리	품판매	학습장	이지운영	위한			
		운영	운영	운영	판매	운영	운영	자원봉사			
성별	남성	3(12.0%)	1(4.0%)	10(40.0%)	3(12.0%)	3(12.0%)	1(4.0%)	3(12.0%)	1(4.0%)	25(100.0%)	df=7 $x^2=11.113$ p=.134
	여성	4(16.0%)	2(8.0%)	1(4.0%)	8(32.0%)	3(12.0%)	1(4.0%)	3(12.0%)	3(12.0%)	25(100.0%)	
	전체	7(14.0%)	3(6.0%)	11(22.0%)	11(22.0%)	6(12.0%)	2(4.0%)	6(12.0%)	4(8.0%)	50(100.0%)	
연령별	50대 이하	1(7.7%)	2(15.4%)	3(23.1%)	0(0%)	3(23.1%)	1(7.7%)	3(23.1%)	0(0%)	13(100.0%)	df=14 $x^2=19.9666$ p=.131
	60대	1(9.1%)	0(0%)	2(18.2%)	3(27.3%)	2(18.2%)	1(9.1%)	2(18.2%)	0(0%)	11(100.0%)	
	70대 이상	5(19.2%)	1(3.8%)	6(23.1%)	8(30.8%)	1(3.8%)	0(0%)	1(3.8%)	4(15.4%)	26(100.0%)	
	전체	7(14.0%)	3(6.0%)	11(22.0%)	11(22.0%)	6(12.0%)	2(4.0%)	6(12.0%)	4(8.0%)	50(100.0%)	
직업	농·수산업	4(12.9%)	1(3.2%)	6(19.4%)	11(35.5%)	5(16.1%)	0(0%)	3(9.7%)	1(3.2%)	31(100.0%)	df=7 $x^2=14.003$ p=.051
	상업·기타	3(15.8%)	2(10.5%)	4(21.1%)	1(5.3%)	1(5.3%)	3(15.8%)	2(10.5%)	3(15.8%)	19(100.0%)	
	전체	7(14.0%)	3(6.0%)	10(20.0%)	12(34.0%)	6(12.0%)	3(6.0%)	5(10.0%)	4(8.0%)	50(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이는 가사 및 개인의 노동과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여성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덜한 교육부문에 응답한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사업아이디어 개발 및 제시, 60대는 주민교육 참여, 70대 이상은 선진지 지역 답사를 통한 주민참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행단계의 경우, 직업별 참여 분야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따라

서 주민참여 분야로서 농·수산업에 종사자하는 주민은 지역경관 개선사업이나 사업과정 참여 및 의견제시가 바람직하고 상업·기타 종사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의 경우 직업별 참여 분야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따라서 농·수산업에 종사자하는 주민은 지역특산품 판매 분야에, 상업·기타 종사자는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 시설 관리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제 사업에 적용했을 때, 적합하고 유의미한 것인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참여방식이 한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중복참여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참여활동들이 서로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 ‘선진지 지역 답사’, ‘주민교육’, ‘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사업아이디어 개발 및 제시’와 같은 활동은 실제로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해당 지역에서 효과적인 적용과 운영방법을 찾아내는 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4) 주민참여 방안

교차분석 결과를 토대로 낭도 지역의 주민참여 방안을 지역소득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 내 체험활동 분야(표 11)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소득사업은 지역특산물 판매와 숙박 부문으로 세분화 되는데, 이 지역의 농산물인 흑마늘, 호박고구마와 수산물, 해조류 등을 농어민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정량·김지

표 11. 주요 주민참여 분야

주민참여 분야		내 용	장 소	참여 대상	역 할	비 고
지역소득 사업	지역특산 품 판매	흑마늘, 호박 고구마 등 지역농산물 판매	여객선 터미널 내 부스	생산 농가	제품 포장 및 판매	수산물, 해조류 포함
	숙박	마을 민박 및 식당 운영	·마을회관 ·농협창고	·마을총회 ·부녀회(60명)	운영 및 수입관리	마을민박(7·12월 결산)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경관 조성	마을 내 담장·도로 개보수	공룡화석지 탐방로 일대	전 주민	노역 참여	
	마을꽃길 조성	도로 주변 꽃가꾸기	·상산 등산로 ·등대가는 길	노인회(70세 이상 139명)	마을 길 청소 및 계절별 꽃(야생화) 심기	고령자 활용
지역 내 체험활동	*어촌 체험	·후리그물치기 ⁵⁾ ·개매기 ⁶⁾ ·바지락 채취	·낭도 사빈 ·고막포 일원	어촌계 회원 (130명)	체험활동 보조	
	*자연·민속·문화 체험	·상산 트레킹 ·공룡화석지 탐방	·상산 등산로 ·낭도등대 주변	강○훈 (현지문화관광 해설사)	안내 및 해설	필요 시 전문 외부 강사 초빙 내지 관광해설관 설치
		·마을 유래·지명 청취 ·당집·당산나무 견학	·낭도 일원 ·여산리	낭도 민속보존회	안내 및 설명	고령 원주민 활용
		·낭도 막걸리 제조과정 견학 ·막걸리 식초 만들기 체험	여산리 낭도주조장	강○훈	안내 및 설명	낭도 주조장 운영
폐교 활용 체험	·지역민 교류 캠프(바다체험) ·폐교에 작품 남기기	·낭도 분교장 ·낭도 사빈	마을 어촌계	캠프 행사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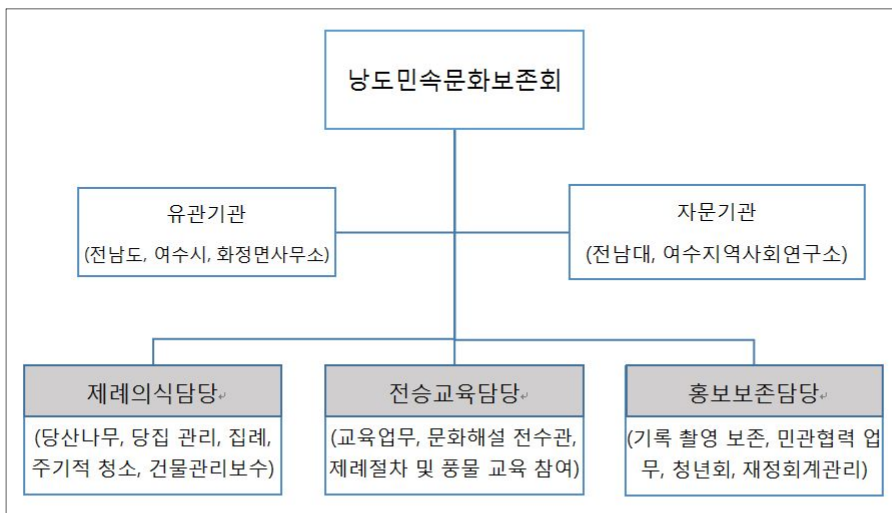
출처: 연구자, 강조 부분과 ‘*’ 표시는 각각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내용임.

용(2008)이 언급했듯이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농업 경영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역특산품의 특화(지리적 표시제) 구축과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상품(농산물 브랜드화)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완주군의 사례⁷⁾에서 보듯이 지자체는 로컬푸드, 마을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수시는 배후지에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어 비교적 3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일단의 소비자들이 농민단체와 계약을 통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CSA 방식의 꾸러미사업”(창작과비평, 2015년 겨울호, 361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을 민박과 식당의 경우 마을회관과 농협창고를 이용하여 마을총회 및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남도여행사업단(가칭)’ 사업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경관 개선사업은 지역경관 조성과 마을 꽃길 조성 부문이 포함되는데, 특히 마을 꽃길 조성 사업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동백나무, 달맞이꽃, 구절초 등 자생식물을 심어서 그 지역성을 살려야 한다. 이 사업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도서지

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내 체험활동으로는 어촌체험, 자연·민속·문화체험 등이 있는데 이를 위해 ‘남도여행사업단’ 운영이 필요하다⁸⁾. 사업단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 탐방객들의 지역 내 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 당제 계승 사업

도서지역은 바다와 관련한 자연재해와 고단한 어로활동 등으로 예전에는 지역마다 당제를 모시는 풍습이 이어져 왔다. 오늘날에는 도서 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당제 등 전통문화와 토속신앙이 배척되어 민속문화자원으로서 당제는 그 명맥이 끊긴 지 오래다. 따라서 도서지역은 이러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민속문화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⁹⁾. 남도의 당제¹⁰⁾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남도민속문화보존회’ 조직을 개선하여(그림 4) 주민의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를 전수할 수 있는 후계자 양성과 전수관 건립이 필요하다. 오늘날 당제 전례나 매구는 대부분 고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의 급격한 인구유출로 이를 전수받을 만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 고령자마저 세상을 떠나면 이러한 민속문



출처: 연구자

그림 4. 남도 민속문화보존을 위한 조직 모델

화자원은 그 명맥이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해마다 정기적인 제례 행사를 통해 당제를 계승·발전시키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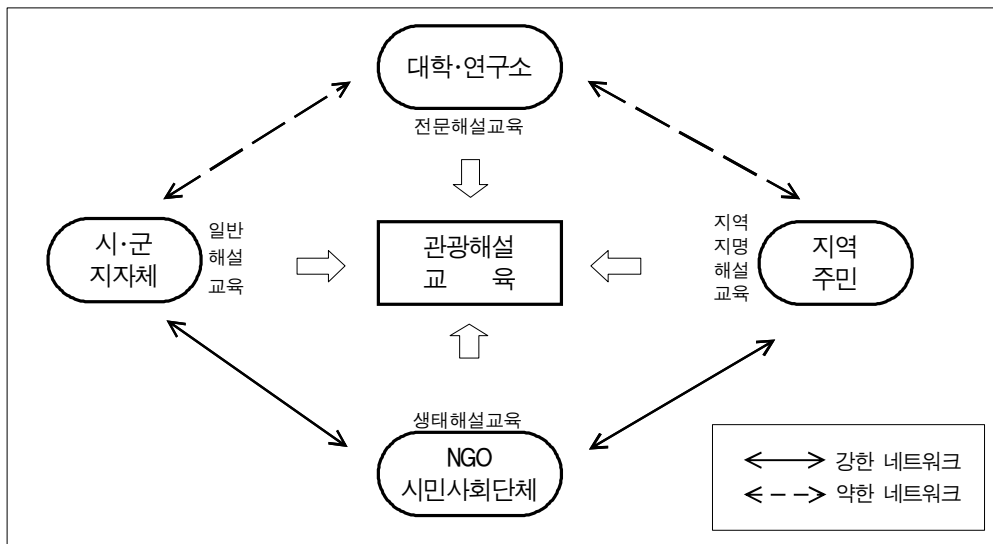
주민들은 당산나무나 당집 관리 보수, 주변 일대 청소와 문화해설을 통한 낭도 유래·역사와 지역 전통문화 설명, 그리고 기록·촬영 업무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운영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민속문화자원을 보존·계승할 수 있으며, 주민들 간의 결속력 강화, 지역 이미지 홍보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②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정착화
 도서지역은 일반 농촌지역과 달리 해상국립공원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많다. 따라서 도서지역은 이러한 자연경관을 잘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데, 낭도는 중생대 퇴적층에 발달한 공룡화석지와 다도해의 빼어난 해안경관을 지니고 있다¹¹⁾. 게다가 깨끗한 수질을 이용한 낭도 막걸리 및 식초 제조업이 발달하였는데 주민참여 방안으로서 지오투어리즘이나 지역 식품제조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먼저, 관광해설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장소로는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지자체·시민단체를 통해 강사진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교육을 이수한 지역민들로 하여금 지역을 홍보하고 도서 현황에 대해 설명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주민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만, 자연경관자원에 관한 해설 경우 전문해설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향인·지자체·시민단체의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법과 지역 대학의 전문가·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해설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지리·지질학 전공의 자원봉사자와 전남대학교 공동연구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휴가철)에 전문해설가를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안내를 담당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관광해설 교육은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간의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해설할 때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지명에 관한 내용에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해설 교육이 결합되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해설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틀이 구성된다. 여



출처: 연구자

그림 5. 관광해설 교육의 영역과 네트워크

기에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외부강사에 의한 전문해설 교육이 더해지면 <그림 5>와 같은 종합적인 관광해설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으며, 관광해설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으로서 주인의식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재고를 가져올 수 있다.

그밖에 도시지역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그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을 민관이 함께 점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이 중요하다. 사업의 성패가 인적 구성원들 간의 소통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피드백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인접 도시와 도시지역 간 순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순환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 유입은 제주도의 사례¹²⁾에서 보듯이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낭도는 여수 화양면과 연도교로 이어지며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도시주민들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귀어·귀촌 프로그램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 내 임대주택 건설(창작과비평, 2015년 겨울호, 365~366면)이 전라남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지답사와 주민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개발 사업에 임하는 낭도 주민의 참여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설문대상자의 인구속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구속성과 참여분야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단계의 경우, 성별과 연령별에 대한 참여분야의 상관관계가 각각 99%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 남성은 대외적이며 외향적인 활동으로서 선진지 지역 답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여 모두 지역 내 활동으로서 주민교육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고른 참여를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참여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진행단계의 경우, 주민참여로서 농·수산업 종사자는 지역경관 개선사업이나 사업과정 참여 및 의견제시가 바람직하고, 상업·기타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연간 소득이 높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의 경우 주민참여로서 농·수산업 종사자는 지역특산물 판매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상업·기타 종사자는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시설 관리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주민들의 참여방식이 한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중복참여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참여활동들이 서로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여 층을 획일적으로 분리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특성에 기반한 주민참여 분야로서 지역소득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 내 체험활동 등 세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낭도를 비롯한 도시지역 관광마을이 여타의 농촌 관광마을에 비해 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이나 지오투어리즘의 적합지이기 때문에 ‘지역 내 체험활동’에 역점을 두고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당제의 계승·발전과 지오투어리즘 관련 관광해설사 역할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지역개발 사업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주민의 특성인 연대감·공공성·참여 중 참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한계가 있으며, 관광 수요자인 도시민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참여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참여는 주민 간의 연대감과 공공복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도시지역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전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는 주민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정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17년 연도교 완공 이후 발생하게 될 지역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자체의 중장기적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법제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지역 내 체험활동의 활성화와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낭도·사도를 연결하는 도보용 출렁다리 설치와 섬 내 산책로 조성, 그리고 생활오폐수·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개선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회사육성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창작과비평, 2015년 겨울호, 362면). 마지막으로, 귀어·귀촌 등 섬 내 인구 유입을 위해 여수 지역사회연구소(2012)의 내용을 토대로 출향인들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민 교류 캠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주

- 1) 나란희(2010)에 의하면 오늘날 지역격차는 도농 간의 격차보다 농촌마을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2)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정태균, 여수 관광두레 PD, 2015.06.18. 면담 내용.
- 4) 전라남도는 2015년 10월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세부사업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여수 낭도는 낭도 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폐교활용 게스트하우스, 장사금 해변의 ‘작은 도서관’, 규포마을 어가 체험, 섬 일주 산책로 18km 코스 등을 개발해 섬 도보여행의 1번지로 꾸민다는 계획이다(전남일보, 2015년 10월 6일).
- 5) 강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친 후에 그물 양쪽에서 여러 사람이 끝줄을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 치기 방법이다.
- 6) 표준어로는 ‘개막이’라 하며, 어살이나 발로 갯벌을 막고 울타리처럼 그물을 쳐 두어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썰물 때 잡는 일을 의미한다.
- 7) 완주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농업, 농가부채 경감, 로컬푸드, 어르신들의 복지농장, 마을회사 육성 등의 ‘약속프로젝트’로 2008년부터 5년간 약 5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년 이후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하였으며 로컬푸드 지원센터 등 민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다. 완주군은 20% 중반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 하이트맥주, KCC 등 중견 기업들의 사업장이 완주에 소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창작과비평 2015년 겨울호, 362~363면).

- 8) 이에 대한 성공 사례지역으로서 전북 완주군을 들 수 있다. 완주군은 전주와 근접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창작과비평, 2015년 겨울호, 361면).
- 9) 여수 지역의 민속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로서 영당(靈堂)의 민속경관에 관한 이윤선(2007)의 연구와 거문도 동신제의(洞神祭儀)에 관한 김준옥(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의 제의가 주민들을 위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민속경관으로서 보존가치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 10) 낭도 당제는 당산 할아버지와 당산 할머니를 모시는데, 예전에 윗당 1곳과 아랫당 2곳이 있었지만 현재는 윗당만 지낸다. 마을 뒷산(당산)에 있는 당집은 1984년에 새로 지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슬레이트 지붕이다. 당집 내부에는 당산 할아버지와 당산 할머니의 신위가 모셔져 있으며, 제사에 필요한 그릇이 보관되어 있다(여수시, 2007). 제사를 모시는 날은 음력 1월 14일이며, 15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제를 지낸다. 제관은 음력 선달 그믐날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제주 부부는 13일 당집을 청소하고 금줄을 치며 황초를 간다. 제(祭)는 분향-제물 진설-헌작-재배-소지-헌식-음복 순이며, 헌제는 축문 대신 “마을이 무사태평하게 해 주시옵고, 풍농과 풍어를 기원합니다”라고 빈다(여수시, 2007). 제물은 나물류, 떡, 과일류, 매 두 그릇, 국 두 그릇, 생선, 마른 명태, 장닭 등이다. 당제가 끝나면 상에 올렸던 제물을 모두 한지(韓紙)에 싸서 당집 뒤편에 있는 돌 아래 묻는다. 당제를 모두 지낸 후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매구를 치면서 답을 해 주고 당집으로 올라와 함께 음복하고 매구를 치며 내려온다(여수시, 2007). 당제를 지낸 후 이튿날인 보름날 오후 3시쯤 마을 앞 바닷가에서 헌식제를 행한다. 매구꾼들이 선착장에서 매구를 치면 당제를 지냈던 제주집에서 상을 차려 내온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주가 잔을 올리고 매구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재배(再拜)한다. 이어 매구놀이가 벌어지고 제물을 모두 바다에 헌식한다. 쌀과 보리를 4되 정도 섞어 지은 매를 바다에 헌식하면서 사람들은 해조류가 잘 자라기를 빌며, 풍어와 바다에서 무사고 등을 기원한다(여수시, 2007).
- 11) 여수 도서지역에 관한 연구로서 생태관광·지오투어리즘 분야에서 이정훈(2011, 2012a, 2012b, 2014)의 연구가 있으며, 낭도의 지형·지질·화석 분야에서 전남대학교·전라남도(1999),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

- 구센터·여수시(2002), In Sung Paik *et al.*(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나 천연기념물 지정 도시의 지오투어리즘 정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남도의 공룡발자국 화석은 국제학술지에 소개될 정도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관한 관광자원 해설서로서 여수시(2007)의 자료집이 있다.
- 12)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인구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제주도는 2012년 5천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했고 2010년에서 2014년 동안 지방세는 매년 18.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창작과비평, 2015년 겨울호, 365면).
- ### 문 헌
- 곽행구, 2006, 해안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6-12, 1-123.
- 김경량·김지용, 2008,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역농업 경영모델 연구, 농촌관광연구 15(2), 25-45.
- 김동주·김정빈·오병태·박경석, 2008, 전남해안의 지형·지질 및 관광자원화 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8-03, 1-74.
- 김준옥, 2014, 巨文島 洞神祭儀의 실상과 지속가능성, 국어문학, 56, 177-198.
- 나란희, 2010,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의식과 성과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 박윤진·김태호, 2010,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익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4(3), 1-9.
- 신영선·곽행구, 2006, 농촌관광 실태 및 당면과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8(1), 285-304.
- 안종현, 2007,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장흥군 진목마을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197-210.
- 여수시, 2007, 여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여수시 관광자원 해설서), 이레기획, 51-54.
- 여수시, 2015,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여수 남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주민설명회 자료), 1-31.
-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여수·여천향토지, 동광인쇄공사.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12, 제12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국제교류캠프' 행사 보고서, 1-12.
- 이연택, 2004, 국가관광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8(3), 143-160.
- 이운선, 2007, 여수 영당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민속경관 전략, 남도민속연구, 14, 281-320.
- 이정록·안종현, 2005, 그린투어리즘과 관광마을 만들기: 이론과 실제, 지리학논총, 45,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197-209.
- 이정훈, 2011, 지형 특성에 기반한 여수시 사도일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6), 738-752.
- 이정훈, 2012a, 지형 특성에 기반한 여수시 도시지역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훈, 2012b, 여수시 금오도의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3), 336-350.
- 이정훈, 201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코스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3), 282-299.
- 전남대학교·전라남도, 1999, 전남 도서 해안지역 지질환경연구, 127-128.
-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소·여수시, 2002, 여수 공룡화석지 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출판부.
- 전라남도, 2015,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1-26.
- 조록환, 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록환, 2005, 도시민의 농촌관광 실태 및 선호도 분석, 문화관광연구, 7(3), 203-224.
- 주대진, 2004, 농촌관광정책에 의한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호·문연희·김현철, 2008, 전남지역 농어촌 관광자원에 기초한 융·복합 관광산업의 메디치효과 창출 전략,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8-08, 1-86.
- Hose, T.A., 2007, Geotourism in Almeria Province, southeast Spain, *Tourism* 55(2), 259-276.

In Sung Paik·Min Huh·Kye Hun Park·Koo Geun Hwang·Kyung Sik Kim·Hyun Joo Kim, 2006, Yeosu dinosaur track sites of Korea: The youngest dinosaur track records in Asia,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28, 457-468.

Stephen Williams, 1998, *Tourism geograph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5.

전남일보, 2015년 2월 27일, '전남도 '가고 싶은 섬' 6곳 선정... 관광자원화'.

전남일보, 2015년 10월 6일, '전남 섬 가꾸기 세부사업 착수'.

창작과비평, 2015년 겨울호, '사회적 경제를 활용

한 도농순환의 지속가능한 상상'.
디지털여수문화대전 / <http://yeosu.grandculture.net/>

• 교신 : 이정훈, 59726,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 북 2길 6,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메일: que-sais-je@hanmail.net, 전화: 061-651-1530)

Correspondence : Jeong-Hun Lee, 59726,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mmunauté de Yeosu, 6, Deuxième Rue du Nord de GongHwa, Yeosu, Jeollanam-do, Corée du Sud(E-mail: que-sais-je@hanmail.net, Tél: +82-61-651-1530)

(접수: 2015.12.18, 수정: 2016.02.20, 채택: 2016.02.25)